

제관업계 위상제고 위한 기틀 마련

높은 재활용율 · 감량화로 환경문제 해결

문광미 /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문광미 전무이사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의 대부분은 스틸캔 제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료시장은 매우 넓고 그에 따른 캔제품의 수요량 변화는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은 이처럼 많은 CAN의 수요량을 책임지고 있는 제관사들의 공동과제와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기관이다.

안 그래도 바쁜 연말과 신년초를 예치금 인상문제로 정신없이 보냈다는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의 문광미 전무이사는 환경부에서 재활용의 문제를 들어 뚜껑부착형

은 2원에서 4원으로 뚜껑분리형은 4원에서 8원으로 2배의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한두업체를 제외하고는 연간 매출액이 몇십억원에 불과한 제관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70년, 현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전신인 '농어촌개발공사'에 근무할 때 정부의 농산물 수출사업 전략품목인 '양송이버섯 통조림'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CAN과 인연을 맺게 된 문 이사는 80년대에 국내 최대의 제관사인 한일제관(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제관조합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조합구성조직에 있는 4개 전문위원회를 대폭 개선하고 활성화시켜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업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

문 이사는 “모든 생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부분이 환경관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관업계에서도 CAN제품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이고 감량화를 위하여 일찌기 탄산 및 음료관의 개관 방식을 EOE에서 SOT로, 참치캔 및 일반 통조림관은 비분리형PULL TAB으로 개선시킨 바 있으며 95년부터는 CAN의 재질분류 표시를 100% 의무화하는 등 분리배출 및 수거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라며 최근 환경과 관련해 재활용 사업에 적극적인 업계의 노력을 설명했다.

60, 70년대까지는 정부의 수출 및 농어민 소득 증대사업의 적극 지원과 월남전으로 인한 전투식량의 CAN제품 수요증가로 통조림산업이 활성화되고 90년대 들어서면서 국내 제관기술도 세계최대업체와의 합작, 기술제휴 등을 발판으로 시설의 자동화·고속화가 이루어져 탄산용 투피스캔의 경우 분당 1200개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CAN수출에도 주력하여 95년에는 일본을 위시한 동남아, 러시아 등에 5천만불 가량의 수출을 이루었으며 특히 일본에 수출된 부탄관 및 부속자재는 무역역조의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관조합의 주요업무에 대해 “제관설비 기준 및 가동율이 70% 미만인 업계의 현실로 인하여 나타나는 조합사간의 여러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품목별 전문생산 체계화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문 이사는 아울러 CAN 수요창출을 위하여 소재·식음료 산업체 등과 용기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계획중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적이지만 조합구성조직에 있는 4개 전문위원회를 대폭 개선하고 활성화시켜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업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 이사는 현재는 제관업계 및 조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꾸준한 연구개발로 앞서가는 업계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1984년 설립되어 96년 1월 현재 조합원수 21개사로 7천억원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은 앞으로 CAN의 무게 감량화에 따른 기술개발과 용기재질 단일화와 관련하여 업계와의 협조와 공동과제에 대한 연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합과 업계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도 자신이 속한 업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문 이사의 모습에서 점차 발전되어 갈 제관업계의 미래를 비추어 볼 수 있었다. ☐

윤지은 기자